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이 남성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1보)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임지영[†] · 강경자*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The Effect of Color Coordination Type on Impression of Male (Part I) - Focus on Tone-on-tone Coloration -

Ji-Young Lim[†] · Kyung-Ja Kang*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5. 11.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lor, shirt tone, tie tone, perceiver's gender on impression formation by applying tone on tone coloration of shirt and necktie: coloration of two color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were 32 upper body photographs which were color outputs by CAD system(4D-box program). We unified those colors of shirts and neckties same, then made shirt and necktie tone differently. 27 bi-polar adjectives, each of which was graded into seven in its degree, were used to evaluate the impression.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92 male and 192 fe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including Jinju City.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program. Analysis methods were four-way ANOVA. The items of the adjectives were classified into 5 impression dimension. - potency, activity, attractive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Color, shirt tone, tie tone, and perceiver gender influenced on 5 impression formation by interaction as well as independently. Blue tie with vivid, light or dull tone had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potency impression, vivid or light tone of shirt affected activity regardless of color or tie tone. As shirt and tie had different tone, effect on the formation of attractiveness impression, light tone had a negative effect on visibility but positive effect on tenderness. red color were more effective than blue expressed on visibility and tenderness in shirt or tie.

Key words: Impression formation, Color Coordination, Tone-on-tone coloration, Shirt, tie; 인상형성, 컬러 코디네이션, 톤 온 톤 배색, 셔츠, 타이

I. 서 론

지금까지의 남성복은 여성복과는 달리 유행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 스타일이나 디자인에서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남성복들은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의복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남성복 시장은 점차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하는 남성소비자의 변화된 패션의식에 맞추어 패션의 감성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남성복은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구두 등과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토템패션화가

[†]Corresponding author

E-mail: jylim@silla.ac.kr

잘 이루어진 분야이며 특히 넥타이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남성들에게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남성 의복 가운데 나이나 체형을 초월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남성의 정장색이 검정, 회색, 갈색 등으로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남성복 착용자의 개성을 살리는데 와이셔츠와 넥타이의 코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남성복의 인상에 관한 연구들(강경자, 임지영, 1996; 남미우, 강혜원, 1994; 송선옥, 이인자, 2001; 이은미, 강혜원, 1994; 이향미, 김재숙, 1998; 최유진, 이명희, 2004)을 보면 의복색과 의복유형, 넥타이색과 무늬, 착용자나 관찰자 연령, 상황 등과 같은 단서들이 인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바 있으나 색상과 톤에 따른 다양한 배색 방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컬렉션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여성복 못지않게 남성복에서도 이미 다양하고 대담한 컬러가 선보이고 있어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은 남성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에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는 남성복 시장에 셔츠와 타이의 2색 배색을 계제적으로 코디네이트 시켜 이들 배색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패션에서 감성화를 추구하는 남성복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의복에서 2색 배색의 연출 방법은 톤 온 톤 배색, 톤 인 톤 배색, 보색 배색, 무채색간 배색, 유채-무채배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색 방법 중 먼저 톤 온 톤 배색으로 통제한 후 한난색인 빨강, 파랑을 선정하여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톤 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미미분최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단서들 즉 셔츠 타이색, 셔츠톤, 타이톤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의 색상과 톤에 따른 인상 형성

의복색은 의복 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심리·생리적으로 작용하여 진출-후퇴, 팽창-수축, 한색-난색 등의 속성에 따라 연상 및 감정작용, 색의 상징성

등의 현상을 일으키므로, 일반적인 색채이미지는 의복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연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색채이미지는 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있다(Kobayashi, 1981).

색이미지에 따른 인상을 살펴보면 이주현, 강혜원(1995)은 빨간색 드레스 착용자는 빨강색의 태양, 불, 피, 정열, 활동의 상징과 관련하여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차미승(1992)은 빨강과 보라색이 현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색계 색채가 진출성, 화려함으로 현시성이 높은 반면 한색계는 후퇴, 진정의 효과로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조궁호(1995)는 빨강색 의복 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띠며, 파란색 의복 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명희, 강승희(1998)는 재킷색에 따른 인상 연구에서 지각자는 빨강 재킷 착용자를 능력있고 젊게 지각하였고, 평가 요인에서도 빨강 재킷을 흰색이나 회색보다 호의적이고 여성적으로 지각하였다. 이혜숙, 김재숙(1998)은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을 연구한 결과 빨강 한복착용자는 멋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남색 착용자는 가장 자신감이 있고 능력있는 이미지를 주었다. 이명희, 홍선옥(2004)은 티셔츠와 바지를 착용한 여성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남색과 보라를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남자는 노랑을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패션디자인의 색채 조합에서는 통일의 요소로 색상이, 변화의 요소로 색조(tone)가 많이 사용되었다. 유사색상이나 대조색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색조차에 의한 대조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민정, 2004). 국내 세분시장별 활용색과 배색 특성을 살펴보면 동일 색상 배색이나 동일 색조 배색, 또는 무채색간의 배색, 저채도/저명도와 다양한 색조 조합간의 배색이 높은 조화도를 보이고 활용빈도도 높게 나타났다(김현진, 2002; 송지영, 2002; 조민정, 2004). 의복에 나타난 색채의 톤 이미지를 살펴보면 은은한 색조는 부드러운 것으로, 밝은 색조는 가볍고 명랑한 것으로, 선명한 색조는 강렬한 것으로, 어두운 색조는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소현, 이경희, 2002). Francis (1987)는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Damhorst and Reed(이인자 외에서 재인용, 2003)는 짙은 색의 의복이 관리직 여성의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색과 톤의 조합에 따른 여성복의 인상에 관한 연구 (김윤경, 강경자, 2003; 최수경, 강경자, 2004)에서 인상 차원은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능력성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트/라이트, 다크/다크의 조합일 때 품위있으며 매력성 차원에서는 색상이, 주의집중성, 온유성 차원에서는 톤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2. 남성복의 인상 형성

남성복의 인상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남자 의복은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색은 남성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중심 특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변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지각 시에는 전체적 형상이 그 개별적 부분들의 합보다 더욱 영향력 있다는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을 지지해주었다.

Molloy(1978)는 넥타이색은 수트와 셔츠보다 진하고 체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은미,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외모·능력, 개성·활동성, 평가 요인이 도출되었고, 착용자 연령에 관계없이 베이지색 착용자가 감색 착용자보다 더 보기좋고 세련되고 능력있으며, 따뜻하고 부드럽고 덜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고,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평가, 활동성, 독특성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는 기본 색상의 캐주얼이 유행색상의 캐주얼보다 더 활동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학생 집단은 면접이나 정장에서 유행색상을 더 활동적으로 지각하였다. 강경자, 임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매력성, 능력성, 독특성, 온유성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매력있는 이미지 형성에는 감색 양복에 유사색 넥타이를, 베이지색 양복에는 대비색의 넥타이가 효과적이고, 이향미, 김재숙(1998)의 연구에서는 평가적, 사교적, 외모·매력, 역동적 차원의 인상 차원이 구성되었으며, 감색 의복이 평가적 차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지적이고 예의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적벽돌색 의복은 사교적 차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밝고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선옥, 이인자(2001)의 연구에서 인상 차원은 멋스러움, 친근성, 활동성, 강인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장은 멋스러움, 친근성, 강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남영, 강승희(2003)의 연구에서 남성의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 형성의 차원은 품위, 활동성, 개성, 사교성의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김현지(2003)의 연구에서는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 중 감색 재킷이 회색과 검정 재킷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셔츠는 흰색이 파랑보다 친근한 평가를 받았으며, 넥타이는 감색은 친근하고 빨강색은 역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유진, 이명희(2004)의 연구에서는 능력, 품위, 활동성, 선호평가, 남성성, 현시성 차원으로 나누었고, 능력성, 선호평가, 남성성에는 의복색이, 품위성과 현시성 요인에는 넥타이색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란색 셔츠와 파란색 재킷 그리고 파란색 넥타이가 배색될 때 능력있고 매력있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색 이미지나 톤에 따른 이미지는 의복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연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복에서 색과 톤의 조합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여성복 못지않게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하는 남성복 마켓에 감성화에 대한 기초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디자인 변형이 적은 남성복에 있어 다양한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에 따른 인상 형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석도구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은 셔츠와 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의 상반신 사진으로 하였다. 자극물의 모델은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기본 체형(국민표준체위조사, 1997)의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제하였다. 자극물 제작은 Digital Camera로 모델을 촬영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수정하였으며 주 작업은 CAD system(4D-Box Hi-Print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자극물의 색상은 한난색을 중심으로 빨강과 파랑을 선정하고 이들색을 셔츠와 타이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실용한국표준색표집(1991)에 근거하여 이들 색상을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와 타이 색상이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 (red)	5R 4/14	5R 8/6	5R 5/6	5R 2/6
파랑 (blue)	5B 5/10	5B 8/4	5B 6/4	5B 2/4

톤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선정된 톤을 셔츠와 타이에 차이 나도록 조합한 톤 온 톤 배색의 자극 물 32개(2색×4톤×4톤)가 최종적으로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이때 배경색은 밝은 회색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2>와 같다.

의미미분척도는 남성복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강경자, 임지영, 1996; 남미우, 강혜원, 1994; 이은미, 강혜원, 1994; 이향미, 김재숙, 1998)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을 참고로 39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최종적으로 색상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2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우측 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었다.

실험설계는 32개의 자극물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표 2> 자극물의 조작 분류

색상 \ 턱이톤	비비드 (V)	라이트 (L)	덜 (D)	다크 (K)	
색상 \ 셔츠톤	비비드 (V)	라이트 (L)	덜 (D)	다크 (K)	
빨강 (R)	비비드 (V)	RVV	RVL	RVD	RVK
	라이트 (L)	RLV	RLL	RLD	RLK
	덜 (D)	RDV	RDL	RDD	RDK
	다크 (K)	RKV	RKL	RKD	RKK
파랑 (B)	비비드 (V)	BVV	BVL	BVD	BVK
	라이트 (L)	BLV	BLL	BLD	BLK
	덜 (D)	BDV	BDL	BDD	BDK
	다크 (K)	BKV	BKL	BKD	BKK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 학과 및 법학, 공학과 남여 대학생 각 192명씩 3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5월~9월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인상 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위해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인상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27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614$ 로 일관성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인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능력성 요인이 .915, 활동성 요인이 .900, 매력성 요인이 .911, 독특성 요인이 .748, 온유성 요인이 .622로 나타났다.

4가지 단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원변량분석을 하였고 보조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상 차원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32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 차원을 밝히기위해 27쌍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5개 요인으로 묶이어 셔츠·타이 착용자의 인상은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책임감 있는-책임감 없는, 성실한-성실하지않은, 예의있는-예의없는, 겸손한-자만심이 강한, 안정된-불안정한, 고상한-야한, 자제력 있는-충동적인, 점잖은-점잖지 않은, 이성적인-감성적인의 9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능력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1.0%였다. 능력성 요인의 구

<표 3>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의한 인상 차원 요인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2)
책임감 있는-책임감 없는	.861	-.052	.170	.003	.020	.774
성실한-성실하지 않은	.847	-.002	.149	-.025	.037	.742
예의있는-예의없는	.831	-.031	.104	-.149	.107	.736
겸손한-자만심이 강한	.736	-.063	.064	-.245	.165	.638
안정된-불안정한	.723	-.070	.214	-.129	.143	.610
고상한-야한	.685	-.284	.106	-.207	-.012	.603
자제력 있는-충동적인	.661	-.179	.274	-.223	-.016	.594
점잖은-점잖지 않은	.644	-.286	.307	-.265	.095	.670
이성적인-감성적인	.592	-.005	.217	-.062	-.224	.452
활동적인-비활동적인	-.142	.791	.080	.213	.065	.702
활력을 주는-가라앉게 하는	-.091	.772	.118	.171	.124	.663
즐거운-우울한	-.023	.763	.144	.027	.202	.645
젊어 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056	.738	.316	.021	-.088	.656
사교적인-비사교적인	-.049	.715	.175	.118	.159	.583
개방적인-보수적인	-.269	.711	.117	.237	-.022	.648
개성적인-개성없는	-.250	.652	.032	.363	-.097	.630
산뜻한-칙칙한	.045	.634	.383	-.056	.165	.580
멋있는-멋없는	.280	.103	.806	-.003	.103	.748
감각있는-감각없는	.197	.253	.804	.074	.125	.770
매력있는-매력없는	.226	.254	.762	.130	.092	.721
보기좋은-보기싫은	.352	.217	.760	-.118	.152	.785
세련된-촌스러운	.238	.384	.739	.014	-.001	.750
강렬한-온은한	-.263	.121	.028	.779	-.070	.696
대담한-소심한	-.165	.270	.079	.719	.112	.636
눈에띄는-무난한	-.370	.362	-.036	.627	-.080	.668
따뜻한-차가운	.040	.092	.169	.090	.853	.775
부드러운-딱딱한	.172	.342	.181	-.175	.683	.676
고유치	5.669	5.078	3.740	2.138	1.527	18.152
전체 변량의 %	20.997	18.806	13.853	7.919	5.656	67.231
공통 변량의 %	31.231	27.972	20.605	11.779	8.413	100.0

성인자는 강경자, 임지영(1996)의 넥타이색과 무늬에서 도출된 인상 중 능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2는 활동적인-비활동적인, 활력을 주는-가라앉게 하는, 즐거운-우울한, 젊어 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사교적인-비사교적인, 개방적인-보수적인, 개성적인-개성없는, 산뜻한-칙칙한의 8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8.81%였다. 이는 의복유형, 의복형태, 색상을 의복단서로 사용한 남미우, 강혜원(1994)의

활동성 요인, 최유진, 이명희(2004)의 남성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색의 이미지 지각에서의 활동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은 멋있는-멋없는, 감각있는-감각없는, 매력있는-매력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세련된-촌스러운의 5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주현, 조궁호(1995)의 의복형태와 색채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매력성 요인, 김윤경, 강경자(2003)의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3.85%였다.

요인 4는 강렬한-온은한, 대담한-소심한, 눈에띄는-무난한의 3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강경자, 임지영(1996)의 독특성 요인, 김윤경, 강경자(2003)의 현시성 요인과 유사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92%였다.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의 2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66%였다. 이는 이은미, 강혜원(1994)의 정장색, 정장스타일, 넥타이색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 요인, 이명희(2002)의 화친 요인과 비슷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성 요인에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있고 겸손하고 안정되고 고상한 것으로, 활동성 요인에서는 활동적이고 활력을 주고 즐겁고 젊어보이는 것으로, 매력성 요인에서는 멋 있고 감각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독특성 요인에서는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띄는 것으로,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 요인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2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능력성과 활동성, 매력성은 공통 변량의 79.8%를 나타내어 톤 온 톤 배색 즉 색상과 톤에 의한 착용자의 인상에서 이 세 요인은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색상,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 성별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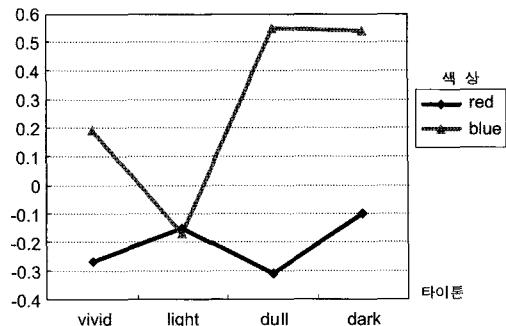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의 4가지 단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위해 4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량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색상,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 성별은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효과를 보면 단서가 색상인 경우 매력성 요인에, 단서가 타이톤인 경우 온유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단서가 성별인 경우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셔츠톤은 모든 인상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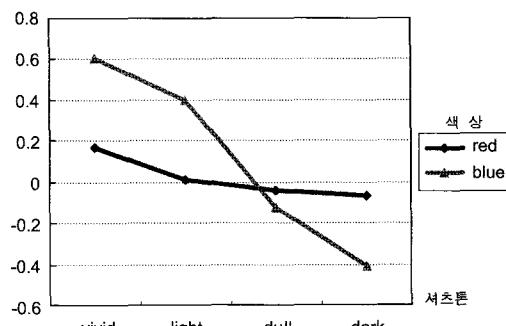
인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톤 온 톤 배색에서는 셔츠톤이 다른 단서보다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셔츠·타이의 색상이나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 성별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임을 알 수 있다. 셔츠·타이색상, 셔츠톤, 타이톤의 세 변인과 성별이 셔츠·타이 착용자의 인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그림 9>의 도표로 설명하였다.

I) 능력성 차원

능력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의 4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색상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색상은 파랑색이, 셔츠톤은 라이트나 다크톤이, 타이톤은 털이나 다크톤일때 능력성 차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남자보다는 여



<그림 1> 능력성 차원에 미치는 색상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활동성 차원에 미치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작용효과

자가 더 높게 평가하였다.

능력성 차원에 미치는 색상과 타이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서 보면 타이톤이 라이트일 경우 셔츠, 타이, 색상간의 능력성 이미지가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빨강색이든 파랑색이든 색상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타이톤이 비비드, 덜, 다크톤으로 할 경우에는 파랑색이 빨강보다 평가점수가 현저하게 높아 넥타이의 톤에 따른 이미지의 평가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색상과 타이톤을 라이트로 하는 것은 색상에 관계없이 피하는 것이 좋고 타이톤을 비비드, 덜, 다크톤으로 할 경우는 빨강색은 피하고 파랑색으로 배색하는 것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있고 겸손하며 안정된 것으로 지각되어 능력있는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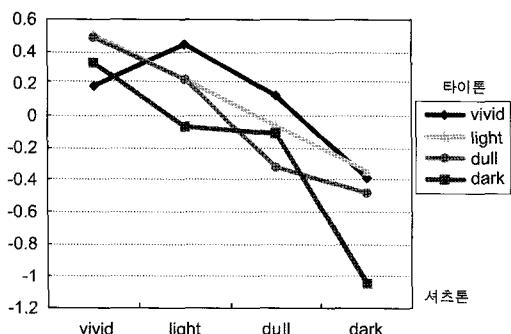
2) 활동성 차원

활동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색상, 셔츠톤, 타

<표 4>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	
		평균 제곱합	F값								
주효과	색상(A)	50.014	65.192**	11.852	14.794**	2.869	3.820	28.936	35.529**	182.947	218.71**
	셔츠톤(B)	16.876	21.998**	31.899	39.815**	9.229	12.288**	36.627	44.972**	11.110	13.281**
	타이톤(C)	4.838	6.306**	4.454	5.560**	2.611	3.476*	8.526	10.468**	.909	1.087
	성별(D)	12.123	15.802**	9.266	11.565**	4.311	5.740*	.100	.123	.212	.253
2원 상호작용 효과	A×B	.590	.769	2.951	3.683*	2.690	3.582*	4.604	5.653**	4.033	4.821**
	A×C	6.266	8.167**	.373	.466	.412	.548	2.435	2.990*	.637	.762
	A×D	.295	.384	2.521	3.147	.404	.538	1.313	1.612	.093	.111
	B×C	.360	.469	1.999	2.496**	6.537	8.704**	1.434	1.761	1.381	1.651
	B×D	.879	1.145	1.854	2.314	2.141	2.851*	.178	.219	1.735	2.074
	C×D	.329	.428	.408	.510	.447	.595	.692	.850	.909	1.087
3원 상호작용 효과	A×B×C	1.761	2.296*	1.218	1.521	1.523	2.028*	1.654	2.031*	.755	.903
	A×B×D	1.672	2.180	.461	.576	3.203	4.265**	.251	.308	.550	.657
	A×C×D	.230	.300	1.618	2.019	.120	.159	.899	1.104	2.773	3.316*
	B×C×D	.968	1.261	.430	.536	1.248	1.661	.648	.796	1.101	1.316
4원 상호작용 효과	A×B×C×D	.253	.330	.569	.710	.651	.866	1.082	1.329	1.065	1.273
MCA		편차	eta값								
색상	Red	-.26		-.13		-.06		.20		.50	
	Blue	.25	.26	.12	.13	.06	.06	-.19	.19	-.49	.46
셔츠톤	vivid	-.39		.39		-.23		.35		-.01	
	light	.19		.21		-.01		-.64		.34	
	dull	-.06		-.08		-.05		.16		-.15	
	dark	.28	.27	-.55	.36	.31	.20	.13	.37	-.20	.20
타이톤	vivid	-.10		.10		-.07		.32		-.08	
	light	-.20		.11		-.14		-.05		.07	
	dull	.10		.00		.13		-.17		.02	
	dark	.20	.16	-.20	.12	.06	.11	-.10	.19	-.01	.05
성별	여자	.11		.12		-.08		.00		-.01	
	남자	-.13	.12	-.13	.12	.09	.09	-.01	.01	.01	.01
Multiple R ²		.177		.174		.063		.206		.252	
Multiple R		.421		.417		.250		.453		.502	

*p<.05, **p<.01



<그림 3> 활동성 차원에 미치는 셔츠톤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

이론, 성별의 4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셔츠톤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색상은 파랑색이, 셔츠톤은 비비드나 라이트톤이, 타이톤은 비비드, 라이트 또는 덜톤일때 활동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활동성 이미지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네 단서 중 색상과 셔츠톤, 셔츠톤과 타이톤간의 상호작용으로 활동성 인상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주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2>에서 보면 셔츠톤이 비비드와 라이트톤일때 빨강과 파랑색 둘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활동적이고 활력을 주고 즐겁고 젊어 보이며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그 정도는 빨강보다 파랑색이 더 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덜과 다크톤일 때는 빨강, 파랑 둘다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비활동적이고 가라앉게 하며 우울하거나 나이들어보이고 비사회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특히 파랑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비비드, 라이트톤일 때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빨강색은 셔츠의 톤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반해 파랑색은 크게 차이를 보여 동일한 파랑색의 의복도 셔츠의 톤에 따라서 활동적 이미지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색상도 셔츠톤이 선명하고 밝은 톤이면 활동적으로, 탁하고 어두운 톤이면 비활동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주는 셔츠톤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셔츠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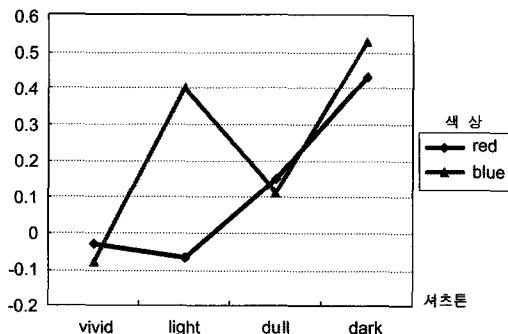
비비드톤일때는 라이트, 덜, 다크, 비비드 순으로, 셔츠톤이 라이트톤일때는 비비드, 라이트, 덜톤의 타이가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덜톤의 셔츠일때는 비비드톤을 제외한 라이트, 다크, 덜타이가, 다크톤의 셔츠일때는 타이톤 4가지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셔츠톤이 선명하고 밝은 톤일때는 더 활동적이고 젊어보이고 사교적이며 개성적으로 지각되고 셔츠톤이 탁하고 어두우면 타이톤에 상관없이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셔츠와 라이트타이, 라이트셔츠와 비비드타이의 조합이나 비비드셔츠와 덜타이, 덜셔츠와 비비드타이의 조합은 셔츠와 타이에 비비드와 라이트나 비비드와 덜의 조합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비비드와 라이트, 비비드와 덜의 조합은 매력있는 이미지를 주는 톤 조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능력성 차원이나 활동성 차원에서 파랑색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파랑색 의복 착용자는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으나 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타이가 비비드, 덜, 다크톤의 파랑색일 때 능력 있는 인상을, 셔츠가 비비드나 라이트 파랑일 때 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 형성시 의복의 색상뿐만 아니라 톤도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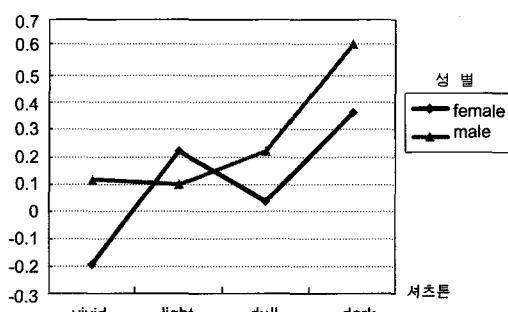
3) 매력성 차원

매력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셔츠톤, 타이톤, 성별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셔츠톤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색상은 파랑색이, 셔츠는 다크톤일 때, 타이는 덜이나 다크톤일 때 능력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능력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활동성 이미지와는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독립변인 중 색상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셔츠톤과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인상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셔츠톤, 타이톤과의 3원상호작용으로, 또는 셔츠톤, 성별과의 3원상호작용으로 매력성 인상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셔츠톤과 타이톤이, 또는 셔츠톤과 성별이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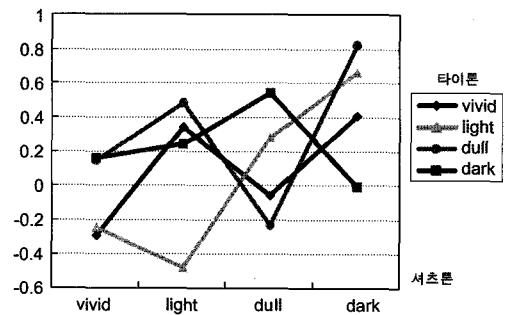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4>에서 보면 셔츠톤이 라이트톤



<그림 4> 매력성 차원에 미치는 색상과 서초톤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6> 매력성 차원에 미치는 서초톤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5> 매력성 차원에 미치는 서초톤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

일때는 색상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랑색은 아주 매력적으로 지각되는 반면 빨강색은 멋없고 감각없고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색상에 관계없이 서초톤이 비비드톤일 때는 부정적인 평가를, 덜이나 다크톤일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어두운 톤의 서초톤일 때 더 멋있고 감각 있고 매력있으며 보기좋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동일한 색상도 서초의 톤 변화에 따라 매력성 이미지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서초톤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5>에서 보면 비비드톤의 서초 일 때는 덜이나 다크톤의 타이가, 라이트톤의 서초 일 때는 비비드, 덜, 다크톤의 타이가, 덜톤의 서초 일 때는 다크나 라이트톤 타이가, 다크톤일 때는 덜, 라이트, 비비드 타이가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즉 서초가 밝은 톤일 때는 서초톤보다 어두운 톤의 타이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서초가 중간 톤일 때는 서초톤보다 밝거나 어두운 톤의 타이가, 서초가 어두운 톤일 때는

밝은 톤의 타이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서초와 타이가 톤 차이가 있을 때 더 멋있고, 감각있고 매력적으로 지각되었으며, 서초와 타이가 같은 톤일 때 모두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명도차이는 1단계 이상인 경우가 바람직하며 대비의 조화에서는 5~6단계의 차이가 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화이론 (이호정, 1997)과 낮은 명도보다 높은 명도 또는 중명도에서 명도차가 더욱 분명히 지각된다(Libby, 1981/1984)는 이론을 지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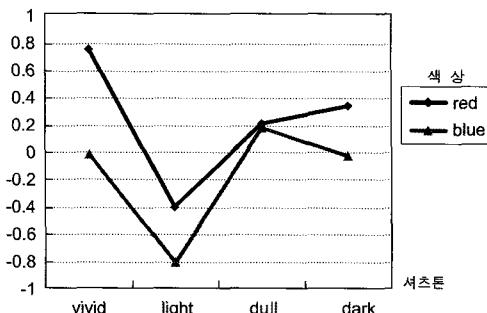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서초톤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6>에서 보면 남여 모두 라이트, 덜, 다크톤의 서초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나 특히 다크톤의 서초를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4) 현시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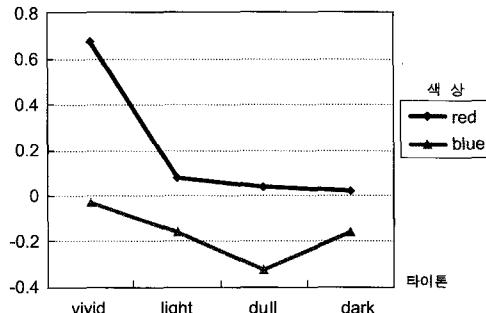
현시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성별을 제외한 색상, 서초톤, 타이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서초톤이 지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상도 중요한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색상은 빨강색이, 서초는 비비드나 덜, 다크톤이, 타이는 비비드톤일 때 현시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현시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단서 중 색상과 서초톤, 색상과 타이톤간에 상호작용하여 그리고 색상, 서초톤, 타이톤의 3원상호작용으로 현시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서초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7>에서 보면 서초톤에 따라 색상간에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여



<그림 7> 현시성 차원에 미치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8> 현시성 차원에 미치는 색상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

대체로 빨강색이 파랑보다 현시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셔츠톤이 라이트톤일 때 두 색상 모두 은은하고 소심하고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비비드, 덜, 다크톤일 때는 대체로 라이트톤에 비해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셔츠톤이 파랑일 때 보다 빨강색 비비드톤 일 때 현시성 이미지가 매우 높았다. 이는 빨강색 의복 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띠다는 이주현, 조궁호(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난색계 색채가 진출성, 화려함으로 현시성이 높고, 한색계는 후퇴, 진정의 효과로 현시성이 낮다는 색채의 심리적 효과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빨강색의 경우 비비드 가 가장 현시성이 높고 다음이 다크, 덜 순이나, 파랑색일 때는 덜톤이 가장 현시성이 높고 비비드, 다크순으로 나타나 색상 즉 한색과 난색은 셔츠의 톤에 따라 차이를 보여 현시성 이미지에는 색상보다 셔츠톤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타이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8>에서 보면 타이톤에 따라 빨강과 파랑의 색상간에는 현시성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였다. 색상이 빨강일 경우에는 타이톤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띠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타이톤 중 비비드톤이 가장 눈에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비드톤을 제외한 라이트, 덜, 다크톤 간의 인상차이는 크지 않았다. 색상이 파랑의 경우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눈에 띠지 않고 소심하고 은은한 것으로 지각되어 상반된 인상을 나타내었다. 셔츠에 비해 타이는 난색일 때는 현시성이 더 강해지고, 한색일 때는 현시성이 더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파랑색 타이는 파랑색 셔츠톤과는 모든 톤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타이가 덜톤일 때 가장 눈에 띠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면적에 따라 명도가 달라보인다는 색채의 심리적 효과를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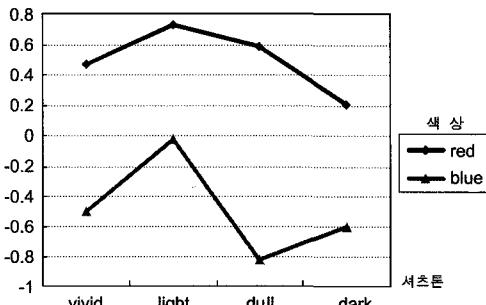
따라서 선명한 톤이 강렬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주소현, 이경희, 2002)와 어느정도 차이를 보인 것은 현시성 인상 차원에서 의복색의 톤이 중요한 단서이긴 하나 색상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색상이 빨강일 때 타이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5)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색상, 셔츠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색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색상은 빨강색이, 셔츠는 라이트톤이, 타이는 라이트나 덜톤일 때 온유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온유성에 더 높게 평가하였다.

온유성 차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단서인 색상과 셔츠톤이 상호작용하여 온유성 차원의 이미지 형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이들 두 단서는 성별과 3원상호작용하여 온유성 차원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9>에서 보면 셔츠톤에 관계없이 빨강색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파랑색은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같은 색상이더라도 톤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빨강색의 경우 라이트, 덜, 비비드, 다크톤의 순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파랑색의 경우 덜, 다크, 비비드, 라이트의 순



<그림 9> 온유성 차원에 미치는 색상과 서초톤의 상호작용효과

으로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톤을 보면 라이트톤이 가장 온유한 것으로 나타나 색채의 온도감은 색상에 의해 크게 결정되며, 명도가 높은 난색의 색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중명도 이하로 명도가 낮은 한색의 색들은 딱딱한 느낌을 준다(조필교, 정혜민, 1998)는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색 배색으로 와이셔츠와 넥타이에 톤 온 톤 배색 방법을 적용하여 이들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의복단 서로 사용된 의복색(빨강, 파랑)×셔츠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타이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지각자성별(남, 여)에 따른 남성 착용자의 인상은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7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 차원을 밝히고, 단서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색상,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 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의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에서 능력성 요인, 활동성 요인은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색상, 셔츠톤, 타이톤, 지각자 성별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셔츠와 타이색상은 능력성과 온유성 차원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활동성, 독특성 요인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매력성 차원에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셔츠톤

과의 상호작용하였을 때는 능력성을 제외한 활동성, 매력성, 독특성, 온유성의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쳤고, 타이톤과의 상호작용으로는 능력성과 독특성의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셔츠톤은 5개 인상 차원 모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에서도 활동성, 매력성, 독특성 차원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색상과 상호작용하여 능력성을 제외한 활동성, 매력성, 독특성, 온유성의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쳤고, 타이톤과 상호작용하여 활동성, 매력성 차원에,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타이톤은 온유성 차원을 제외한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독특성 차원의 인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지 않았다. 색상과 상호작용하여 능력성과 독특성의 인상 차원에, 셔츠톤과 상호작용하여 활동성,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성별은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차원의 인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지 않았다. 셔츠톤과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능력성 인상 차원에는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 4가지 단서 모두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색상은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즉, 이들 단서 중 색상과 타이톤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 그리고 색상과 셔츠톤과 타이톤의 세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지각 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색의 타이가 비비드, 덜, 다크톤일 때 파랑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있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빨강색은 톤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색상에 관계없이 타이톤이 라이트일 때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인상 차원에는 4가지 단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셔츠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4가지 단서 중 색상과 셔츠톤, 셔츠톤과 타이톤은 상호작용으로 지각 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난색에 관계없이 셔츠톤이 선명하고 밝은 톤이면 활동적이고, 탁하고 어두운 톤이면 비활동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비드와 라이트, 덜과 비비드의 톤조합은 셔츠와 타이에 어느 쪽으로 바뀌어도 매력 있는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인상 차원에는 색상을 제외한 셔츠톤, 타이톤 그리고 성별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셔츠톤이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색상은 주효과로 작용하지 않아 지각자에게 뚜렷히 지각되지는 않더라도 셔츠톤

과 상호작용으로, 색상과 셔츠톤과 타이톤, 색상과 셔츠톤과 성별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매력성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셔츠톤과 타이톤의 배색효과는 색상과 셔츠톤, 셔츠톤과 성별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하였다.

현시성 인상 차원에는 색상, 셔츠톤, 타이톤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두드러진 단서는 셔츠톤에서 나타났다. 이 세 변인은 독립된 정보로 작용함과 동시에 색상과 셔츠톤, 색상과 타이톤, 색상과 셔츠톤, 타이톤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셔츠톤의 상호작용을 보면 색상보다 셔츠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상과 타이톤의 상호작용에서는 타이톤보다 색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유성 인상 차원에는 색상과 셔츠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배적인 단서는 색상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은 독립적인 정보로 작용함은 물론 지각단계에서 상호작용하여 통합되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셔츠톤에 상관없이 빨강색으로 하고 특히 라이트톤의 셔츠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색의 셔츠는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주지만, 라이트톤 셔츠는 온유한 이미지를 주는데 비교적 효과적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색상과 관련하여 보면 파란색 의복 착용자는 능력있고 매력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으며, 빨강색 의복 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띠며 밝고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진다고 한 선형연구와 일치하여 한난색의 색상이미지는 의복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연관되어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또한 셔츠톤은 활동성, 매력성, 독특성 차원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타이톤은 색상이나 셔츠톤과 상호작용하여 모든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 형성에는 의복의 색상뿐만 아니라 톤도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셔츠와 타이의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는 색상, 셔츠톤, 타이톤은 독립된 정보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각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상 형성시 개인은 각기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 형태로 지각한다(Sears et al., 1985)는 형태주의적 이론을 지지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서 색상은 동

일하게하고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고 톤에 변화를 준 톤 온 톤 배색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자 하였다. 앞으로 배색유형을 달리하여 톤 인 톤 배색, 콘트라스트 배색,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 무채색간의 배색에 대한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남성복에서는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색 유형을 달리한 연구는 남성복 시장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고급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전 패션마켓에 의미있는 색채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국민표준체위조사. (1997). 사이즈코리아. 자료검색일 2004, 1, 1, 자료출처 from <http://sizekorea.ats.go.kr/>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현지. (2003).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진. (2002). 국내 캐주얼웨어와 스포츠웨어의 세분시장별 색채특성과 색채차별의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311~326.
-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 형 및 체형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369~378.
- 송지영. (2002).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세분시장별 활용색과 배색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실용한국표준색표집. (1991). 서울: KBS한국색채연구소.
- 이명희. (2002).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503~514.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명희, 홍선옥.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55~66.
- 이운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197~210.
- 이은영. (1996).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3).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복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2보)-Dress 및 Pants, Blous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주현, 조금호.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의복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 (제1 보)-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호정. (1997).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340-351.
-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조합에 따른 색 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필교, 정혜민.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 주소현,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표현된 색채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 초록집*, 26, 29.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4).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 변화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4), 459-473.
-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6), 131-140.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 Francis, S. M.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Perception Motor Skills*, 64(2), 383-390.
- Kobayashi, Shigenobu. (1981).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6(2), 93-107.
- Libby, W. C. (1981). 색채와 구성적 감각. 이양자 역 (1984). 서울: 미진사.
- Molloy, J. T. (1978). *Dress for success*. N. Y.: Warner Book Inc.
-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L. A. (1985). *Social psychology* (5th ed.). NewYork: Prantice-Hall.